

# 도개울이 어때서!

황지영 글 | 애송 그림

※ 이 수업 후기는 세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단원:

4학년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나)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교과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다루고 싶은 주제: #자신을 사랑하기, 나와 다른 친구 이해하기

선정 내역: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도서

작성: 창원 교방초등학교 김근영 선생님



## ■ 선생님의 책 소개

수아네 반에 도개울이란 아이가 전학 옵니다. 전학 온 첫날부터 개울이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짙끈 묶은 머리카락은 분수처럼 솟아 있고 수업 시간에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메밀묵을 먹으면 눈이 반짝입니다. 수아는 그런 개울이가 싫지 않습니다. 수아는 개울이에게 소곤소곤 말하라고 알려 주고, 개울이가 좋아하는 묵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수아 엄마가 하는 묵 가게에도 데리고 갑니다. 개울이는 “구수구수 구수아!”라고 수아를 놀리는 유찬이를 혼내 주기도 합니다. 수아가 개울이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둘은 점점 우정을 쌓아 갑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개울이의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지만, 수아는 끝까지 그 비밀을 지켜 줍니다.

## 수업 디자인

### 가. 프로젝트 철학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사랑스럽습니다. 『도개울이 어때서!』는 특별하고, 씩씩한 개울이의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숨기고 지내는 수아와 남과 다르지만 당당하고 씩씩한 개울이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와 다른 친구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함께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 나. 수업 디자인 과정

#### ■ 성취 기준 및 학습 요소 분석

영역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듣기 · 말하기	[ 4국01-04 ]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표정 · 몸짓 · 말투)
읽기	[ 4국02-02 ]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내용 간추리기
	[ 4국02-05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경험과 느낌을 나누기
쓰기	[ 4국03-02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쓰기에 자신감 갖기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 갖기)
	[ 4국03-05 ]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 4국05-02 ]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인물 · 사건 · 배경 이해하기
	[ 4국05-04 ]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 4국05-05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작품을 즐겨 읽기

##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 ■ 온작품 차시별 수업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독서 전	1	-책 표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주인공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추측하기 - 질문 만들기
독서	2~3	7~31쪽 <구수구수 구수아>, <이상한 도개울> 읽고 활동하기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찾기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짐작하기
	4~5	32~49쪽 <개울이와 메밀묵> 읽고 활동하기 -도개울이 도개비임을 드러낸 단서 찾기 -도개비가 바라보는 인간의 특징 찾기
	6~7	50~77쪽 <내 소원은?> 읽고 활동하기 -내 짝이 도개비라면 빌고 싶은 소원 이야기 나누기 -내가 갖고 싶은 방망이 표현하기
	8~9	78~103쪽 <꼭 잡은 손>, <우리의 약속> 읽고 활동하기 -내가 숨기고 싶거나, 숨고 싶었던 경험 나누기 -우리 반에 개울이가 전학을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 나누기 -만약 내가 개울이라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기
독서 후	10	-책 표지 다시 그려 보기 -내 마음 속 한 장면을 골라 상상하여 표현하기
	11~12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골라 연극 대본 쓰기 -등장인물이 되어 연극 활동하기
	13~14	-수아처럼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내 마음을 숨겼던 경험 나누기 -개울이가 자기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도개비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기

## 독서 전 활동

### 1. 책 표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표지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아요.

표지 가운데 양발을 벌리고,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서 있는 아이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황색 머리가 하늘로 부채처럼 솟아 있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습니다. 노란 티셔츠와 분홍 바지를 입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주인공의 모습에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빨리 읽고 싶어 했습니다. 주인공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제목이 『도개울이 어때서!』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도개울’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개울이의 모습이 조금 특이하니, 하는 행동이나 말도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남다른 모습이지만 “뭐 어때! 어때서!” 하고 말해 주는 친구가 있는 이야기라고 예상했습니다.

### 2. 주인공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추측하기

표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서로 어떤 사이일까요?

개울이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왼쪽 여자 친구는 밝게 웃으며 점프를 하고 있지만, 오른쪽 남자 친구는 찡그린 얼굴에 어정쩡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자 친구는 ‘뭐 어때서!’라고 말해 주는 친구이고, 오른쪽 남자 친구는 개울이와 사이가 나쁠 것 같아요.” “개울이에게 무슨 일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예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3. 질문 만들기

표지로 대강의 내용을 예상하면서 질문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 주인공의 이름은 왜 도개울일까요?
- 주인공과 왼쪽 여자 친구는 어떤 사이일까요?
- 주인공과 오른쪽 남자 친구는 어떤 사이이고, 남자 친구의 표정은 왜 저럴까요?
- 개울이가 등에 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개울이는 왜 등에 그런 것을 메고 있을까요?
- 개울이가 선 나무 바닥은 왜 부서져 있을까요?
- 개울이 주위에 있는 책과 음식, 우산, 햄버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개울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구수구수 구수아〉, 〈이상한 도개울〉 읽고 활동하기



### 1. 등장인물의 마음, 그것이 알고 싶다!

4학년 1학기 국어(나) 교과서에는 '10단원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가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은 표정이나 행동으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인물의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이에 온작품과 연계해 〈구수구수 구수아〉와 〈이상한 도개울〉 두 개의 장을 읽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독서 후 활동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찾아 그 인물이 되어 보는 즉석 연극 활동도 해 보았습니다.

〈한 수 아〉

유찬: 구수해? 그럼 봐서 너도 좀 귀하게 생겼다. 3

한결: 한하하. 수아는 목관 많이 따서 귀하게 생겼어. 7

행동 (아이들): 자꾸자꾸 웃었다. 4

유찬: 귀한 한수아, 귀한 한수아... 귀해?! 1

아. 난 앞으로 한수아 말고 구수아! 8

아이들: 구수아! 흐르도.

행동 (아이들): 유찬이가 바늘 고래뿔 공이 화를 내면 아이들도 웃었다.

---

인물의 마음

한수아는 그 별명이 싫어서, 유찬이가 계속 부르니까 내 화내도 하고 웃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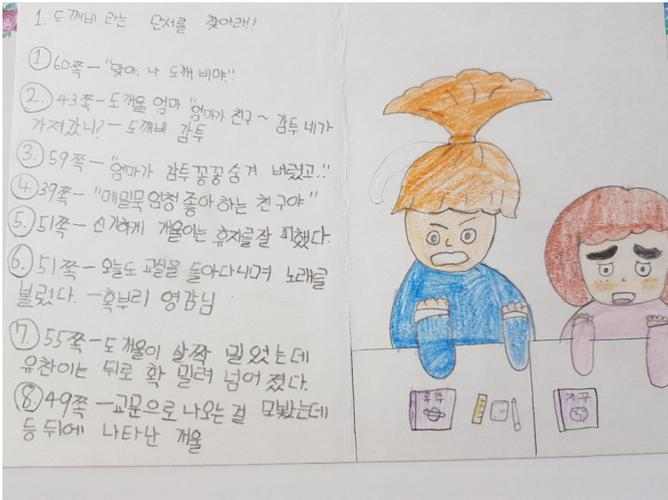
내가 선택한 등장인물	책 속 인물들이 그 등장인물에게 한 말과 행동	
	유찬	구수해? 그리고 보니 너도 좀 구수하게 생겼다.
	등장인물의 마음	

내가 선택한 등장인물	책 속 인물들이 그 등장인물에게 한 말과 행동	
	등장인물의 마음	

## 〈개울이와 메밀묵〉 읽고 활동하기

### 1. 단서를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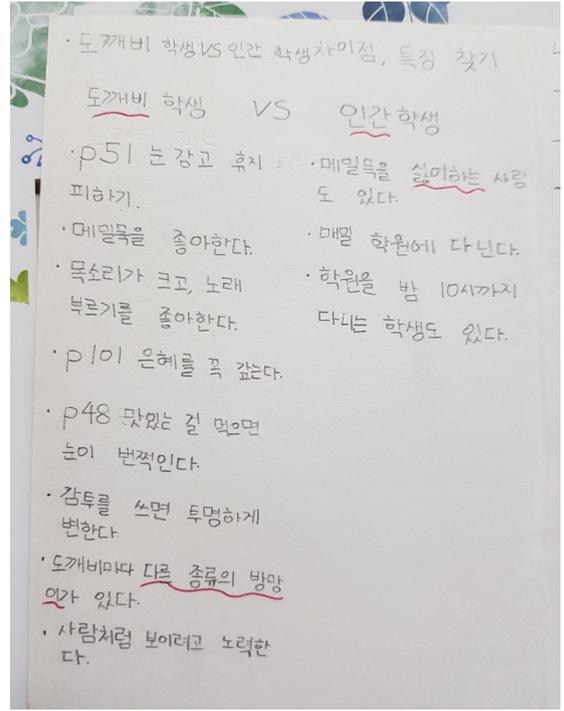
〈개울이와 메밀묵〉 장을 읽고, 개울이가 도깨비라는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평소 도깨비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도깨비의 특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개울이가 메밀묵을 보면 눈을 반짝이고 좋아하는 부분에서 “혹시 도깨비 아니야?”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개울이 도깨비라는 단서(본문 쪽)	단서 장면 그리기

## 2. 사람과 도깨비, 어떻게 다를까?

그다음에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도깨비 도깨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 학생의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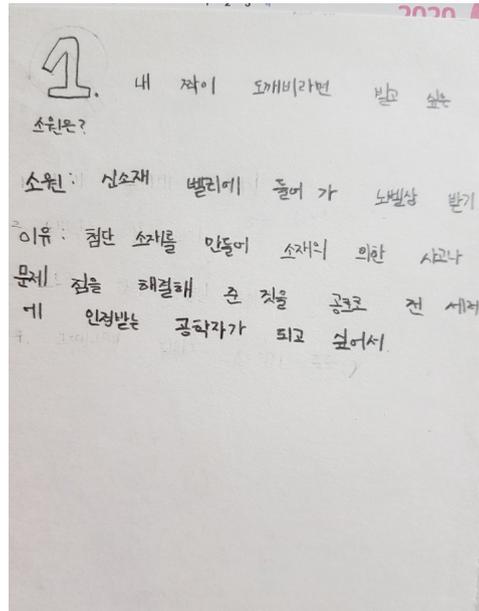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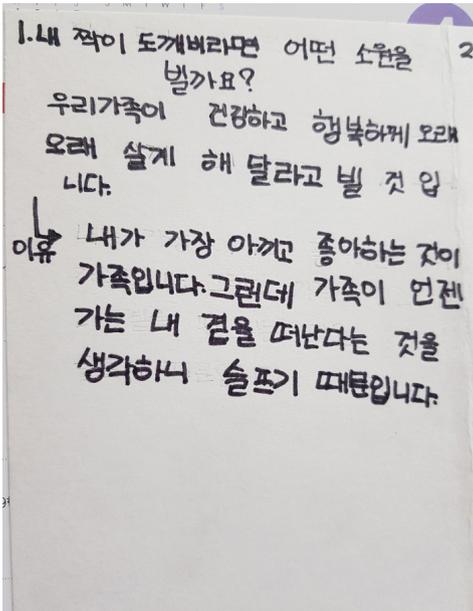


도깨비 학생의 특징	사람 학생의 특징

## <내 소원은?> 읽고 활동하기

### 1. 소원을 말해 봐!

내 짝이 만약 도깨비라면 같은 도깨비라면, 도깨비 방망이를 빌려서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소원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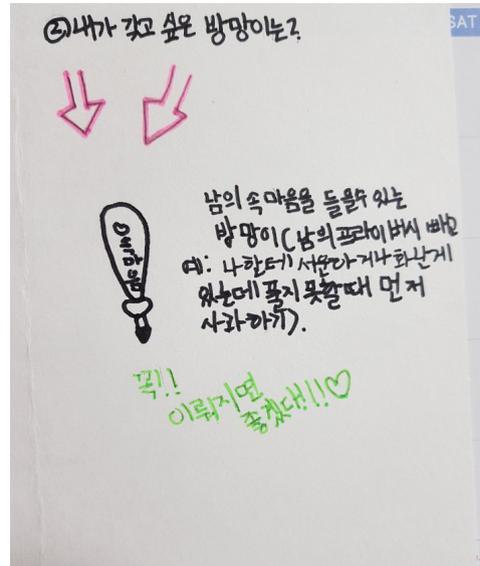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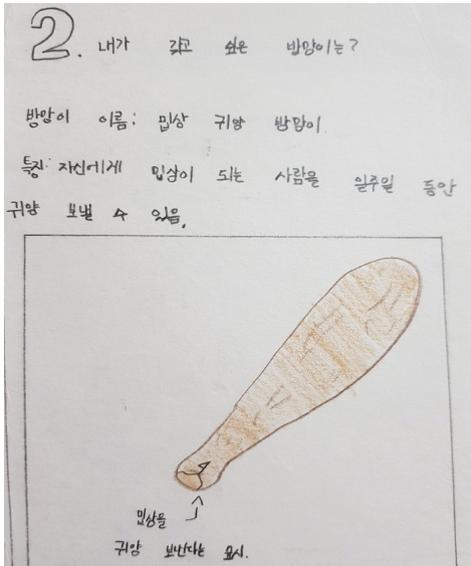


내 짝이 도깨비라면,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은...

그 이유는...

## 2. 내가 갖고 싶은 도깨비 방망이 그리기

내가 갖고 싶은 방망이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돈을 만드는 방망이’가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발한 방망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방망이,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야구 방망이, 땀살스러운 사람을 귀양 보내는 방망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망이 등등. 아이들이기에 이런 생각과 표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 수업 일수가 줄어 등교 수업에는 주지 교과를 다루기에 급급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표현 활동으로 입체물로 만들어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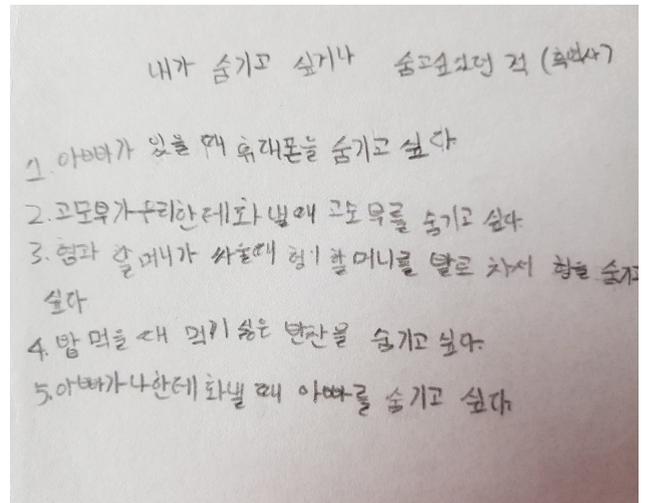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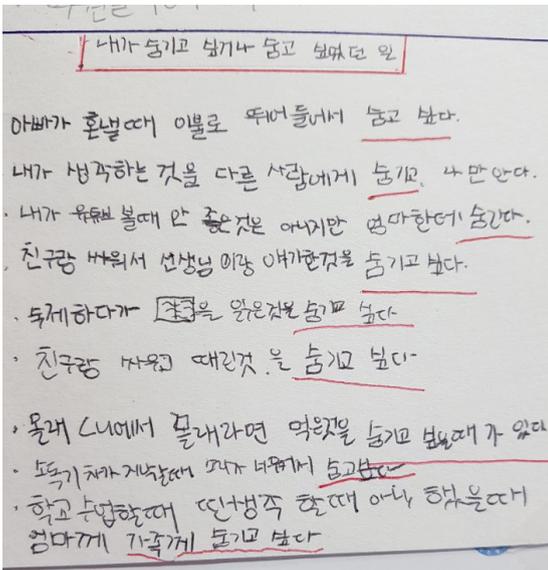


내가 가지고 싶은 도깨비 방망이는...

## 〈꼭 잡은 손〉, 〈우리의 약속〉 읽고 활동하기

### 1. 내가 숨기고 싶거나, 숨고 싶었던 경험 나누기

도깨울이 어디선가 불쑥불쑥 등장하는 데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깨비감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도깨비감투가 있다면 숨기고 싶거나, 숨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숨기고 싶은 순간을 ‘흑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가족 누군가에게 혼날 때나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속상했던 경험을 썼습니다. 이미 자신이 한 잘못을 알고 있는데, 다시 혼나기까지 하니 숨거나,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상황에 혼내는 어른인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 독서 후 활동

### 1. 나를 돌아봐!

앞에서 아이들은 ‘숨기고 싶은 순간’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주로 잘못된 행동이나 좋지 않은 기억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다움’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아처럼 무엇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마음을 숨겼던 경험을 나눠 봤습니다. 그 대답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아처럼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내 마음을 숨겼던 경험이 있나요?

- 어릴 때 포크레인을 좋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잘 따라 추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추지 못했다.
- 주유소의 기름 냄새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말을 못했다.
- 급식을 더 먹고 싶은데, 돼지라고 놀릴까 봐 말하지 못했다.
-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할머니 노래 좋아하네.'라고 놀릴까 봐 숨겼다.
-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서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못했다.

## 2. 우리가 만들어 봐!

개울이가 도깨비인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당당한 도깨비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책 한 권을 함께 읽으며, 아이들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덧붙여 '국어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보다 선생님과 책으로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라고 말해 주는 아이들의 한마디에 힘을 얻으며, 온작품으로 펼쳐는 국어 수업의 참맛도 느꼈습니다. 『도개울이 어때서!』를 응원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 놀리지 않고, 존중하기
- 모두 다 다름을 인정하기
- 비밀 지켜 주기
- 상대의 말에 경청하기
- 친구의 말에 "나도 그래." 공감해 주기
- 친구가 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기
-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기